

수출 140억불... 부산과 어깨 나란히

민선 5기 출범 이후 광주 지역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초과학 및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강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 생활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는 등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광주건설'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지역 각종 산업·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광산업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이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는 것은 물론 3D융합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이 마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선5기 출범 이후 광주경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3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광주, 이젠 생산도시

〈상〉 각종 경제지표 개선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광주지역 각종 산업·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 등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어음부도율은 감소세와 함께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인 1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9월 말 현재 100억달러 수출을 일찌감치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부터 연산 50만대 체제로 전환한 광주 기아자동차 쏘울 라인.

▲사상 최대 수출 달성

광주시는 지난해 1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 9월 말 현재 101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지난해보다 3개월이나 빨리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 14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함으로써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실적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 713억 달러, 인천 210억 달러 그리고 부산 123억 달러에 이어 4번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인천 36.8%와 대구 33.4%에 이은 30.4%로 3번째다.

특히 광주보다 경제규모(GRDP) 면에서 2.5배, 사업체 수는 2.6배, 그리고 인구 수에서는 2.4배인 부산시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비슷한 규모인 대구의 38억 달러, 대전의 28억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3~4배에 이르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수출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아자동차 연 50만대 생산체제 전환, 광주산 성장전자의 매출증가 등 대기업의 수출증가와 더불어 그동안 광주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광산업과 하이테크금융산업 등 첨단산업의 꾸준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출 및 생산 호조

각 산업부분의 매출 전망도 매우 밝다.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은 기아자동차가 올 생산 48만대에 매출액 7조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전부분의 삼성전자는 5조 매출, 광산업은 3조 매출 그리고 금융산업도 1조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디지털가전·광산업 등

매출 17조대...전년비 24.5% ↑

45개 기업 3124억원 투자유치

9월 실업률 2% 광역시중 최저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가 되는 제조업 생산자수 경우 지난해 4/4분기 147.5(2005=100)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2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의 생산자수도 148.3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고용시장 호전

고용사정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4분기 취업자수는 68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5%, 특히 대도시 평균 1.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실업자 수는 민선4기 말 2만2000여 명이었

지만 민선5기 첫해인 지난해 말에는 1만8000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올해 9월에는 1만40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실업률도 지난해 2/4분기 3.9%에서 올해 3/4분기에는 2.6%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9월의 실업률은 2.0%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민선 5기 들어 일자리종합센터 확대, 고용친화적인 환경 개선사업, 미스매치 해소대책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지난해에만 민간부문에서 7000여 개, 공공부문에서 2만7000여 개 등 총 3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망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발

투자유치에 올인 하는 강운대 시장의 시책에 따라 국내외에서 수많은 유망 기업과 자본 등이 유치되고 있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규모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강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민선5기 이후 투자유치액에서 체결 실적은 147개 기업에 2조 5362억 원으로 고용 창출인원이 1만여 명에 달하며, 투자가 완료된 것만도 45개 기업에 3124억 원으로 실제 투자율이 3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대불산단 11개 조선·태양광업체 독일 방문

위기의 조선산업, 풍력서 길을 찾다

독 선진 풍력기술 배워

태워·플랜트 진출 모색

“위기의 대불 조선산업, 해상풍력 이 대안이다.”

대불산단 내 조선 관련 업체들이 조선산업의 불황을 뚫고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 풍력 산업을 배우고 있다.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최준태)에 따르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태양광업체 등 11개사로 구성된 ‘한·독 풍력클러스터 교류협력단’이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 독일 풍력 관련 업체·대학·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교류협력단은 대불산단 내 조선 업체인 대화정공과 자유기업, 진성기계, 선우 등이 참여해 풍력타워 및 파운데이션, 해상플랜트 등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지역 태양광설비업체인 가람이엔씨와 광부품업체 포미도 자사 기술의 풍력발전 적용 방안을 찾고 있다.

호남권 풍력산업은 조선 업종의 사업 다각화에 따라 추진되면서 독자적



한·독 풍력클러스터 글로벌 교류협력단이 지난달 31일 독일 자브뤼켄대학에서 풍력 포럼과 기술세미나를 열어 양국 풍력기업 간 기술 교류 및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제공>

기술기반 및 시스템 업체 부재, 생산·지원 인프라 빈약, 인재양성 시스템 부재, 영세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독일 현지법인인 KIST 유럽연구소와 자브뤼켄대학, 코트라 등과 공동으로 풍력산업포럼 및 기술세미나를 열어 독일·유럽의 풍력산업 현황과 전망, 공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독일 풍력발전투자유치국(BIS)과 프라운호퍼 풍력연구소를 방문해 풍력산업 투자 유치와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독일의 대표적 풍력기업인

파워윈드사와 해상풍력클러스터 등과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풍력 건설기업인 윈드가드사와는 풍력 전문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교류했다.

교류협력단을 이끈 김일수 목포대 교수는 “호남권 신성장산업인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풍력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풍력 관련 전문가와 교류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 풍력업체들의 구조적 취약성과 기술기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은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광주은행이 7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KJB Campus Friends) 제4기 활동 해단식을 가졌다. 이들 홍보대사는 광주은행의 이미지 홍보와 금융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주은행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7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KJB Campus Friends) 제4기 활동 해단식을 가졌다. 이들 홍보대사는 광주은행의 이미지 홍보와 금융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주은행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터치산업 클러스터 150억 투자유치

솔렌시스 등 2개업체, 기술 컨설팅·공장 건립

스트게이트테크놀러지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가 결합한 합작품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일자리 없다... 빈일자리율 전국 최저 수준

광주고용청 노동력 조사

광주지역의 빈일자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구직자들의 설 자리가 좋다는 의미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만7936개 표본 사업

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4월 기준)' 결과, 광주지역 근로자 수는 39만242명, 전남은 56만4551명이었다.

이 중 1년 이상 근무한 상용직은 광주 30만6631명, 전남 45만7420명이고,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은 광주 5만6392명, 전남 8만3705명으로 각각 14.5%, 14.8%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16만2683명으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만8298명, 17.5%), 제조업(5만5708명, 1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5만3220명, 13.6%), 건설업(5만332명, 12.8%) 순이었다.

구인 여부를 보여주는 빈일자리율

은 광주가 0.5%로 전국 평균(0.7%)을 밑돌며 대전(0.3%)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낮았다. 전남지역 빈일자리율은 0.7%로 조사됐다.

빈일자리율의 마지막 영일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종사자들의 사업체 이동은 광주와 전남 일직률이 3.1%(전국 5.2%), 이직률 광주 3.8%(전국 4.2%) 전남 3.2%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12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중점반 9급 중점반 법원시기보 7:30 검정직 영·소·영·전(전) 한빛고시학원 전문 부서관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강편제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